

노자 도덕경(道德經)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의 탐색*

최 명 민⁺

(백석대학교)

박 승 희⁺⁺

(성균관대학교)

김 성 천

(중앙대학교)

김 기 덕

(순천향대학교)

이 은 정

(중앙대학교)

[요 약]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사회복지실천의 중심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사회복지실천관계에 대한 현행 담론은 이론적 정향과 실천적 유용성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회과학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노자 도덕경은 유력한 대안 담론으로 검토될 만하다. 크게 본체론, 개체론, 수양론을 아우르고 있는 도덕경은 원인론, 인과론, 개체주의로 상징되는 서양철학의 전통과 달리 객관주의, 긍정적 비판주의, 인본주의, 평등주의, 상호성과 관계성을 지향하는 유기적 세계관을 지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노자 철학을 통해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을 모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도출해 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실천의 지향점을 '자연적 인본주의'로 설정함으로써 실천관계를 인간본성에 근거한 상보적 존재로 규정한다. 둘째,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존재로서 인간본성을 규정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잠재적 가능성과 이를 저해하는 인위적 억압을 인식한다. 셋째, 노자적 관점을 취하는 사회복지사는 폐쇄적 전문주의를 넘어 성찰과 무위(無爲)의 실천 주제로 설정된다. 이와 같이 노자 도덕경은 서구중심의 관계론이 가진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항 대

* 본 논문에서 사용한 도덕경 판본은 『老子道德經(王弼註)』, 欽定四庫全書이다.

+ 주저자

++ 교신저자

립적 한계를 넘어 한국적 사회복지실천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론적, 실천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사회복지실천관계론, 노자 도덕경, 자연적 인본주의, 상생, 본성, 성찰성

1. 서론

본 연구는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을 통해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의 핵심 요소인 '관계론(theory of relationship)'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탐색적 시도이다. 사회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의 양태는 크게 변모하고 있으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맺는 실천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사회복지 교육과 실천현장을 중심으로 현행 사회복지실천관계론에 대한 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관계론이 담고 있는 이론적 정향에 대한 부분과 관계론의 실천적 유용성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다(권지성 외, 2004; 유영준, 2008; 최명민, 2009; 김성천, 2010; 양난주, 2010).

먼저 실천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관계론은 실천이 미시적이고 기능적 수준의 임상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감정, 태도, 정서적 유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정책과의 관계가 중시되면서 다원적, 다면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복지실천현장을 감당하기에는 기존 관계론의 초점과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념적,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현행 관계론이 휴머니즘에 근거한 정서적 공감을 근본 토대로 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주로 전문성, 의도성, 목적성, 시간성, 권위성 등과 같은 계몽주의적 모더니즘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정향은 실천을 실천주체간의 권력적 비대칭으로 인한 억압과 통제 혹은 관리적 경향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존 관계론이 과연 인간의 자유와 해방이라는 사회복지 고유의 가치와 이념에 적절히 부합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론의 이념적 정향에 대한 비판은 현재 다양한 형태의 대안 논의들을 자극하고 있고 이는 주로 개인적 주체의 독립성과 권위를 강조하며 억압적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는 이용자참여주의나 당사자주의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강승원·이희정, 2012; 최옥채, 2012; 이봉주, 2013).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전통적 실천관계론이 근거하고 있는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은 일정 정도 비판적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대안이 되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율과 권위를 중심으로 실천주체들의 개별적 다양성을 견지하려는 노력들은 기존 관계론이 가진 통합과 일치를 해체와 분열로 대체할 뿐 여전히 전통적 이항분리(binary)의 시각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인문,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양의 대표적 철학서인 도덕경(道德經)을 통해 인간 이해와 사회조직화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

고 있다(장백기, 2001; 유성애, 2004; 김수동, 2006; 이부영, 2008; 오열근, 2010; 조순영·임재택, 2011).¹⁾ 이 시도들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양철학의 인과적 사유와는 달리 상관적 사유(correlative thinking)를 견지하며 세계의 구성이 엄격하게 분리된 대립적 요소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 공존하고 있다는 인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사회관을 제시한다(김백희, 2004; 오상무, 2005; 안재호, 2008).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그간 한국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드물기는 하나 노자의 사상을 통해 사회복지에 조망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박희택, 2004; 김동국, 2008; 사회복지정보원, 2011).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개 복지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도덕경 혹은 도교사상의 일부 내용을 소개한 정도여서 도덕경의 사상 전체에 대한 실천적 조망에는 충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총체적인 시각에서 노자 도덕경을 통해 현행 사회복지실천관계에 대한 대안 담론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현재 실천관계를 다루고 있는 이론, 담론, 연구경향을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노자의 도덕경의 이념적, 실천적 잠재력을 추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제기와 방향을 제시하는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의 개념과 위상 그리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들이 가진 한계를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사상 체계로서 도덕경이 가진 고유성을 본체론, 개체론, 수양론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존 서양철학 전통과 구별되는 노자 철학의 특징들을 조망하였다. 본 연구의 핵심에 해당되는 4장에서는 도덕경에 근거한 사회복지실천 관계론을 탐색하면서, 특히 도덕경의 사상체계에 조응하여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지향점, 실천관계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위상, 그리고 그 관계 등을 차례로 논의하였다.

연구의 성격에 비추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한 논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험 자료의 수집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 문제와 관련된 문헌 및 연구 자료들은 논증 과정에서 직접 인용되거나 재해석되어 활용되었다.

2. 사회복지 실천 관계론에 대한 이해

1) 실천 관계론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실천관계(working relationship), 원조관계(helping relationship), 작업동맹(working Alliance), 치료동맹(therapeutic alliance)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명칭에 관계없이 사회복지실천이 발전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실천개입의 영혼이자, 심장이며, 주요 결정요인

1) 도덕경이 새롭게 조망되고 있다고는 하나 노자 사상은 일찍이 고구려 시대에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래로 조선시대에는 배불척도 정책을 펴면서도 노자 주석서가 나올 정도로 우리 민족의 정서와 사고에 뿌리 깊게 각인되어 왔다(도광순, 1994; 김윤경, 2011). 이는 도덕경 64장에 나오는 千里之行 始於足下(천리길도 한걸음부터)와 같은 구절이 한국인의 전통적 속담으로 내려온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으로 간주되어 왔다(Coady, 1993). 전통적으로 관계는 문제해결과 적응을 위한 촉매제로 인식되었으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감정과 태도 및 정서적 유대를 증시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Biestek, 1957; Perlman, 1957; Pincus and Minahan, 1971).

현행 교과서를²⁾ 중심으로 살펴본 관계론의 주요소들은 대부분 Biestak(1957)이 임상경험에서 도출하여 제시한 7가지 관계 원칙인 개별화, 의도적 감정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수용, 비심판적 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비밀보장이다. 이 외에도 진실성, 일치성, 자아노출, 따뜻함, 권위와 권한, 감정이입 등이 기본요소로 제시되어 왔으며 전이, 역전이, 저항 등은 저해요소로 구분되어 왔다. 최근에는 파트너십 개념이 부각됨에 따라 누구에게 해주는(doing to) 관계가 아니라 함께 하는(doing with) 관계라는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Compton et al., 2005).

2) 관계론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담론 동향

(1) 바람직한 실천관계의 방향성에 관한 담론

전통적 관계 담론의 초점은 자아의 경계 개념 위에서 건강한 분리와 자율성 확보에 맞춰져 왔고 대표적 입장은 의료적 개념에 기반을 둔 거리모델(Distance model)이다(Goldstein, 1997).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전문 지식과 기관의 위상에 근거하여 객관적 관찰자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하고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치료성공을 증시하는 계층 관계의 형성을 통해 실천 관계는 전문적 관계로 지칭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주의는 최근 탈근대적 사고를 비롯한 여러 접근으로부터 경계 침범의 위험과 함께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어 온 것이 상호적, 감정이입적 자세를 통해 유대감, 개방성, 맥락성을 증시하는 관계모델(Relational model)이다(Dietz and Thompson, 2004). 기법중심 개입보다는 감정이입적, 협력적 관계가 환경적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며 옹호와 임파워먼트가 가능하다는 주장(Coady, 1993), 성공적 원조관계는 행위(doing)보다 태도(being)가 중요하다는 보고(Ribner and Knei-Paz, 2002), 실천 관계의 핵심으로 유대(bond)와 협력(cooperation)이 중요하다는 발견(Kondrat and Early, 2010)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의 정직성, 진정성, 자기인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입증되어 왔으며(Davies, 1994; Abramson, 1996; Edward and Bess, 1998; Dewane, 2007), 전문가와 이용자를 독립된 개체로 보기보다 '상호작용 속의 자기(self)'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Arnd-Caddigan and Pozzuto, 2008).

여기서 우리는 현재 사회복지실천 관계 담론의 지향은 전문가주의 또는 근대주의적 입장, 사회구성주의, 후기구조주의 또는 탈근대적 입장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관계를 구성하는 주체에 대해서도 독립된 개체로서 자각과 성찰하는 개인이라는 근대적 인간관과, 상대의 가치와 관점을 동등하게 인정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변화에 개방적인 탈근대적 인간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최옥채, 2002; 양옥경 외, 2005; 엄명용 외, 2005; 이원숙, 2008 등

(2) 관계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연구

관계론에 관한 또 다른 담론적 경향은 관계론의 윤리적 측면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관계론의 윤리적 측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자기결정권'과 '클라이언트 참여'에 관한 쟁점이다. 자기결정권 존중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타자존중의 원칙 중의 하나이지만 실천현장의 다른 가치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온정주의다. 참여와 선택, 협의가 증시되는 자기결정권은 명확한 기준과 구체적 전략이 모호하며, 또 다른 원칙인 선행의 원칙에 의거한 온정주의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다(김기덕, 2006).

윤리적 측면에 관한 담론에서도 역시 전통적인 구조주의적 접근과 탈구조적인 접근이 혼재되어 전개되고 있다. 구조주의적 견해는 이용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실천과정을 강조하기보다 기관의 조직적, 제도적 차원에서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Holter et al., 2004; Leung, 2011). 반면 탈구조주의적 입장은 전문가의 지식이나 성과를 강조하는 도구적 합리성보다는 예술적, 상황적 판단과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욕구와 관심사를 인식하는 것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Wilson and Beresford, 2000; Cooper, 2001; Ferguson, 2001).

(3)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관계론 담론의 핵심은 관계의 구성 주체에 대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최근 들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시각도 변화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회복지 서비스에 시장기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클라이언트를 소비자로 보는 접근이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일방적 수혜자로 보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고 관계를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식하도록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주의는 서비스 이용자 일부만을 포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서비스 소비능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권이 제한되므로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이 선택권을 갖지 못 할 수도 있다(최명민 역, 2007).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배타적으로 증시될 경우 전문가가 자신의 재량과 책임을 방기하고 핵심가치를 훼손함으로써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김기덕, 2006), 사회복지실천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치고 소비자 권한에만 초점을 두게 되어 실천환경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져온다는 비판도 있다(양난주, 2010).

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의 범주에 대한 반성적 고찰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천관계의 대부분이 전문가의 권위와 전이-역전이와 같은 개념 속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이는 1:1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단의 복잡성, 순환성, 상호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chwartz, 2005). 또한 실천관계가 지역사회 속에서 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지지적 네트워크 구축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문가-이용자 관계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Coady, 1993).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의 관계론은 아직 1:1 면담 관계론에 비해 이론화 작업이 충분하지 않아 원칙이나 원리의 제시 측면에서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집단 및 지역사회 차원의 관계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계론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실천관계와 관련된 국내 담론의 동향

실천관계에 관한 국내 담론의 동향은 몇 가지 한정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아직 풍부한 논의가 전개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우선, 선행변수로서 실천관계가 실천의 유형이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들(권중돈, 2002; 민소영, 2005; 권자영, 2010a), 대상별 실천관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지각 및 인식에 관한 연구들(김연희·하경희, 2005; 김용득 외, 2009; 박숙경·김용득, 2010), 한국인의 관계적 특성을 고려한 실천방법을 모색한 연구(최명민, 2008), 관계측정 척도개발연구(권자영, 2010b) 등이 있다. 그리고 관계의 윤리적 측면을 다룬 연구로서 자기결정권(김기덕·장은숙, 2008), 이중관계(박미은 외, 2001)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좀 더 범위를 넓혀보면 심리학 분야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한국문화를 고려하여 정서적 지지와 더불어 부모-자녀와 같은 관계 회복을 강조해야 한다는 연구(장성수, 2001),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에 관한 연구(노혜숙 외, 2007), 새터민에 대한 치료적 관계형성을 위한 역할을 제시한 연구(김현아, 2007)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추구해야 할 본질적이고 이상적인 관계론, 다양한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론, 또는 한국인의 관계적 특성을 반영한 관계론 등을 제시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한국 사회복지교육현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관계론의 내용은 여전히 서구에서 직수입한 내용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3) 기존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의 한계와 과제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기존 사회복지실천관계에 대한 담론들이 극복해야 할 한계와 과제를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념적, 이론적 정향 측면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관계를 둘러싸고 전문가주의-소비자주의, 근대주의-탈근대주의, 구조주의-구성주의 등에 입각한 각각의 입장이 혼재해 있다. 또한 현재 관계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천지침들은 넓은 영역(spectrum)의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차원에서 도출된 것으로 그 이론적 기반이나 정향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가 명시되지 않은 채 복잡적이고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실천원칙들 간의 이념적, 이론적 차원의 모순과 불일치가 관찰되고 있다.³⁾ 따라서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전문가-이용자의 이상적인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지향점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으며 적어도 관계의 원칙들은 배경 이론 및 철학과 함께 일관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실천적 유용성 측면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의 치료적 면담상황에서 정서적 유대

3) 한 교과서 상에서도 전문가로서 권위를 언급하는 동시에 형평성과 협력을 강조하는 등 각기 다른 지향이 이론적 기반 없이 병렬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경우 학습자는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사회복지사로서 위치를 설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와 친소(親疎)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원칙론적 관계론은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변화에 적절히 조응하지 못하며 따라서 복합적이고 때로는 갈등적인 실천현장의 관계이슈들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은 교육현장의 지식이 실천현장에 연결되거나 도움이 되는 정도가 낮다고 느끼고 있으며(권지성 외, 2004; 김기태 외, 2005), 실천가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 가며 새로운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이론에 의한 객관적 인식론보다 경험에 기반을 둔 구성주의적 인식론을 더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권지성 외, 2004; 유영준, 2008; 이근무·김영숙, 2009; 이현주, 2012; 최성재 외, 2013).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복지현장과 사회복지사 인식과정의 다양성을 포괄하면서도 주어진 관계상황에 일관된 실천적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관계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적 맥락의 측면이다. 실천관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두 체계만의 역동이 아니며 이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Brown, 1994). 관계 자체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서구 인간관계의 개념 위에서 개발된 관계론을 충분한 검토나 검증 없이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김성천, 2010). 한국인의 관계에 작용하는 핵심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서구의 관계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일반적 관계를 병리적으로 오인하거나,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은연중에 서구중심의 가치를 주입하거나, 자신의 실천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명민, 2008). 따라서 낮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동양적, 또는 한국적 문화가 작용하는 사회복지실천관계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통해 서구에서 수입된 다양한 이론이나 모델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노자 도덕경의 철학적 체계와 특성

1) 도덕경의 체계와 구성

노자 도덕경은 전체 분량이 5,000여자에 불과한 짧은 글이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심오하여 도덕경의 출현 이전까지 단편적 사상에 불과했던 중국의 세계관을 철학체계로 승화시킨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徐復觀, 1995). 흔히 존재론, 인식론, 윤리학, 미학, 논리학 등의 하위 범주로 구분되는 서양철학과 달리 동양철학은 주로 본체론(本體論), 개체론(改體論), 수양론(修養論)의 3개 범주로 구분된다(안재호, 2008).

먼저 '본체론'이란 말 그대로 본체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로, 본체란 인식주체의 감각에 드러나는 현상의 근본 바탕에 존재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체론은 세상과 만물의 근원과 작용을 탐구하고 그를 통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에 비해 '개체론'은 궁극적 실재가 구성해 낸 만물, 즉 개별적 존재들이 어떠한 성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분야이다. 지금

까지 철학 역사에서 궁극적인 실재인 본체가 생성한 만물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아온 범주는 자연(自然)⁴⁾과 인간이었으며,⁵⁾ 특히 근대 이후 철학은 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사물을 생성하는 궁극적 실재인 본체가 개체를 만들어 낼 때 개체는 완벽하게 본체를 담아 내지 못하며 현실의 구체적 형질이 된다. 따라서 개체들은 자신을 생성한 본체가 가진 존재의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개체가 본체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론이 바로 '수양론'에 해당한다(안재호, 2008: 335).

2) 도덕경의 하위 범주들⁶⁾

(1) 도덕경의 본체론

본체론의 핵심은 우주만물의 생성 주체와 운동에 관한 논의이다. 도덕경은 도(道)를 우주자연의 생성주체로 보고 세상만물은 도의 자발적 자기전개과정의 결과로 간주한다. 흔히 본체생성론적 사고(ontologico-cosmological thinking)라고 불리는 이러한 입장(馮友蘭, 1999: 51; 김백희, 2004 :94에서 재인용)⁷⁾에서 보면 본체는 역동적 실체인 도이며, 도가 자신의 작용인 덕(德)을 통해 스스로를 전개하여 유기체적 세계인 우주만물을 상관대대의 논리(co-relational thinking)로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상관대대론(相關待對論)은 인간과 우주, 자연과 인간, 개체와 개체 사이의 상응성과 근본적 일치성을 받아들이는 상관적 사유와, 개별자들은 영원한 독자성이나 불변적 본질을 갖지 않고 서로의 존관계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대대론(待對論)을 결합한 논리이다(김백희, 2004: 95).

도덕경의 본체인 도(道)는 현상적 만물인 유(有)의 차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의 인식과 감각 세계를 벗어나 존재하는 혼연(渾然)과 황홀(恍惚)의 존재이다. 다시 말해 도는 임시방편으로 무(無)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으며(도덕경 1장, 21장, 25장), 스스로 존재하고 운동한다는 측면에서 자연(自然)인 존재이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존재인 만유(萬有)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도가 절대적 무에 머무를 수 없다. 절대적 무가 존재인 유를 생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無)는 비록 분명하게 인식 혹은 규정될 수는 없으나 실제 존재하고 운동하는 존재로서 유(有)와 결합하여 오묘한 실체를 드러낸다(도덕경 1장). 즉, 무로서 도가 근본적이고 오묘한 작용을 의미한다면 유는 도의 결과를 의미하며

4) 원래 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nature의 번역어로 자연(自然)을 사용하면서 自然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본래의 의미 외에 nature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도 자연(自然)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5) 이러한 측면에서 동양철학을 본체론, 인성론, 수양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김진근, 1991: 203), 노자 철학에서는 인간과 더불어 대표적 개체인 자연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상체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개체론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6) 이하에서 인용되는 노자 도덕경의 구절들은 지면관계상 원문을 직접 인용하는 것은 생략하고 해당 구절이 속한 장의 숫자만을 밝힌다.

7) 본체생성론은 우주자연의 근원적 구성질료인 본체를 탐구하는 본체론(ontology)과 그 역동적 본체로부터 어떻게 세계가 생성하고 소멸하는지 그 운행과정을 탐구하는 생성론(cosmology)이 결합된 사유방식을 말한다(김백희, 2004: 94).

무와 유는 서로 쌍을 이루어 얽혀 있다(김형효, 2004: 36-42). 그러나 본체인 도는 인간의 인지와 도덕에 의해 설정되고 조작된 유나 유명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그 자체는 무목적(無目的), 무의지적(無意志的)인 무위자연(無爲自然)이다. 여기서 무위(無爲)란 문자적 표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법칙에 따라 만물의 생성과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조작이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자연(自然)이란 이러한 운동이 자발적인 내재적 법칙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흐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도덕경 37장).

(2) 도덕경의 개체론

도는 천지 만물을 생성, 양육하여 존재하게 하지만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지만물 역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발전시켜 갈 수 있다. 이렇게 천지만물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도의 작용인 덕(德)이다. 도가 천지만물을 만들고 덕이 그것을 기른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도덕경 51장). 따라서 도에 근거하여 태어나고 도의 작용인 덕에 의해 길러진 만물은 도와 동일한 본질을 고스란히 그 바탕으로 삼는다.⁸⁾

그런데 도의 의해 생성되고 덕에 의해 양육되는 개체들이 온전히 도와 덕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개체들은 비록 도의 특질을 부여받고 태어나지만 유로서 일정한 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형질들은 실(實)하고 동(動)하는 음양 등의 기본재료로 이루어져 있어 본질적 허정(虛靜)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에 이목구비의 욕구와 마음의 인지작용이 생긴다(안재호, 2008: 322).⁹⁾

도가 낳은 대표적인 개체인 인간을 보면 개체가 도의 법칙과 어긋나는 모습이 더욱 신랄하게 드러난다. 인간의 의지와 욕망에 의한 인위는 세상을 자기만의 기준으로 차별화하고 이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상호 의존적인 상대적 관계에 불과한 만물에 고정적인 가치나 본질을 부여한다. 따라서 노자의 도덕경은 성과 지, 인의, 교리와 같은 인간의 지식과 가치 개념이야말로 언제나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본다(도덕경 19장).

인위적인 노력과 조작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유는 천하를 구성하는 만물은 하나의 단일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본성을 가진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합이기 때문이다(오상무, 2005: 256). 따라서 지도자가 자신이 세운 기준을 가지고 억지로 이들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들이 가진 천성을 해하게 되고 결국 천하를 망치게 된다(도덕경 29장). 따라서 노자는 기본적으로 통치자는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도덕경 49장).

(3) 도덕경의 수양론

노자 도덕경의 본체론과 개체론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궁극실체인 도(道)와 덕(德)에 근거하고 그 작용인 덕을 통해 현실의 구체적 형질로 구성된다. 덕은 도의 본질을 고스란히 간직하여 존재의 완전함을 구현하지만 개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욕구와 인지를 통해 도와 덕을 거스르게 된다. 따라서 개체

8) 이는 노자 도덕경 51장의 갓난아기(赤子)의 비유에서 잘 드러난다. 갓난아기는 순수함 즉 무의 대표적인 모습과 특성을 가진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9) 도덕경 13장은 욕구와 인지작용이 있는 몸으로 인해 모든 근심이 생긴다고 언급한다.

가 자신을 낳고 기른 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적 차원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런 노력의 내용과 방법론이 다름 아닌 수양론(修養論)에 해당한다. 수양의 방법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먼저 개인적 차원을 보면 무엇보다 마음을 비우고 지식과 욕망을 없애야 한다(도덕경 3장). 이는 지극한 비움을 통해 고요함을 유지함이 수양론의 핵심이라는 도덕경의 근본 지침을 인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도덕경 16장 致虛極, 守靜篤). 다시 말해 외부 존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과도한 의미규정을 지양하며 이를 추구하는 배움과 지식을 멀리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사사로운 욕심을 없애고(도덕경 7장 去私), 아끼고 절약하며(도덕경 59장 蓄), 늘 만족함을 알고(도덕경 33장 知足), 조화로움을 지키고(도덕경 4장 守和), 부드러운 것과 약함을 유지하는 것(도덕경 36장, 40장, 76장 柔弱) 등이 될 것이다(김백희, 2004: 103). 결국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무위로 대변되는 노자 도덕경의 수양론은 허심(虛心), 즉 무지(無知)와 무욕(無慾)을 통해 허정(虛靜)의 본질을 유지하며 유약(柔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안재호, 2008: 333-334).

사회적 차원에서 도(道)의 구현자인 성인(聖人)은 구성원들을 인위적이 아니라 자발적이면서 조화롭게 이끌어야 하며 이는 무위로써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는 역설적 언명으로 제시된다(도덕경 3장 爲無爲, 則無不治: 33장). 즉, 무위의 정치를 시행하는 성인은 구성원들의 성품을 우직하게 하고(도덕경 65장 愚民),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도덕경 10장 愛民), 헛된 욕망과 욕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도덕경 3장, 75장), 이념적 구조나 화려한 꾸밈을 버려야만 한다(도덕경 19장 去文飾). 결국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도 노자 도덕경의 기본 사상은 과도한 인위적 이념과 조작으로 비롯되는 추상적인 문화와 지식이 도와 덕을 가리고 있다고 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위에 경도된 인간중심주의적 질서를 무위를 통해 극복하는데 있다고 본다.

3) 도덕경 철학의 특징과 의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도덕경 철학의 특징과 의의의 핵심은 객관주의적, 긍정적, 평등적, 인본주의적 비판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노자 도덕경 철학은 기본적으로 객관주의적 입장을 취한다. 도덕경은 인간의 주관적 사유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초월적 영역인 도의 세계를 구축하여 인간 인지와 의지와는 구별되는 존재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존재의 법칙과 윤리 규범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김진근, 1991: 214). 이같이 인위를 극단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도덕경에 담긴 철학은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김문주, 2005: 282-283).

둘째, 노자에 대한 흔한 오해와는 달리 도덕경의 철학은 허무주의나 은둔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욕망으로 점철된 문명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둔 적극적 실천철학이다(이진경, 2005: 180). 노자 도덕경은 세상의 지식을 전복하는 참된 지혜를 추구함으로써 수단에서는 무위일 수 있으나 목적에 있어서는 유위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노자의 철학은 높은 수준의 합리주의 철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이하배, 2003: 395).

셋째, 노자 철학은 긍정의 인본주의 철학이다. 여기서 인간은 덕의 본질을 가지고 명지(明知)와 욕불욕(慾不慾)의 의지를 가진 가능성의 존재이며 반성적 주체로서의 역량을 가진 것으로 본다(이진경, 2005: 187-188). 다시 말해 인간은 유와 무, 유명과 무명, 무욕과 유욕의 경계에서 수양과 공부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여 도를 추구하는 자아로 상징된다(맹주만, 2009: 206-211).

넷째, 노자 철학은 강한 평등주의 철학이다. 세상의 본체인 도가 낳고 덕이 기른 사물들은 자연의 본성인 도를 나누어 가진 존재로 이들 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개체들은 스스로 도를 구현할 수 있는 자발적 주체이며 심지어 도를 먼저 깨달은 성인조차 이 과정의 매개자이자 반성적 안내자에 불과하다(이진경, 2005: 190). 그러므로 성인이 갖추어야 할 미덕은 보편성과 공정함을 바탕으로 둔 공평무사이다(이진경, 2005: 191).

다섯째, 노자 도덕경은 상호성과 관계성의 철학이다(전동진, 1999: 225). 도덕경의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은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무엇이 무엇의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적 논리에 따라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사물들의 특성과 위치는 절대적이거나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들과의 관계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4. 노자적 사회복지실천 관계론

도덕경은 특정 집단이나 지위에 있는 인물에게만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대사회에서는 도덕경의 이념과 실천을 따르고자 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도덕경에서 언급하는 성인(聖人, 지도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노자의 도덕경이 기술되었을 당시에는 현대와 다른 사회구조와 개혁구조를 논하였기에 도덕경의 현실적인 주체가 공동체 혹은 정치 지도자일 수 있으나 현대와 같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주체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¹⁰⁾ 뿐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그 누구도 도덕경을 깨우칠 경우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여기에서는 도덕경이 사회복지실천관계론에 주는 철학적이며 실천적인 의미를 다음과 같이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노자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실천의 지향: 자연적 인본주의

인간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맺는 관계의 목적은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실천관계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관계를 맺는 것은 이후 실천과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해 주어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10) 정치가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네이버사전), 이 시대의 우리 사회와 인간에 대해 고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존재인 사회복지사를 당시 정치지도자로서 성인에 대한 내용에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궁극의 지향점은 웰빙(well-being)¹¹⁾이나 안녕(安寧)¹²⁾ 상태, 즉 복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설명하는 유사어로서 이것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지는 못 한다.

이에 비해 도덕경에서 제시하는 성인과 백성의 관계를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적용해 본다면 여기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관계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 爲無爲則 無不治 (도덕경 3장)

그래서 성인의 정치는 백성의 마음을 비워주고 백성의 배를 채워주며, 백성의 뜻을 약하게 하고 백성의 뼈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이 (명(名)¹³⁾ 등을) 아는 것이 없게 하고 욕(欲)을 갖지 않게 하며 언제나 지식인 따위가 감히 일을 꾸미지 않게 한다. (이렇게) 무위(無爲)를 실천하므로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다시 말하면 좋은 정치, 즉 좋은 실천은 사람들이 언기 어려운 재화나 헛된 명성을 좇아 이를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괴로워하며 경쟁하도록 하지 않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통합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 낸 명(名) 등을 알고 욕(欲) 가지는 것을 경계하며 자연의 본성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무위(無爲)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 본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본성을 발현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精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도덕경 57장 中)

그러므로 성인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명(名)에 따라 하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동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 내가 명에 따라 일을 꾸미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지며, 내가 욕(慾)을 가지지 않으니 백성이 스스로 소박해진다.

이와 같이 도덕경이 제시하는 성숙과 자정,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신뢰는 서구에서 비롯된 인본주의(humanitarianism)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클라이언트중심모델과 같은 인본주의적 실천에서 강조하는 비심판적 태도와 수용¹⁴⁾, 자기결정권¹⁵⁾ 등의 가치는 이렇게

11) 의미: 심신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함. 유사어는 복지, 행복(네이버 사전)

12) 의미: 아무 탈 없이 편안함. 유사어는 무사, 안전, 안락(네이버 사전)

13) 말로 된 명칭, 학설, 이론, 이념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대상에 대한 생각과 행위를 규정하지만 이것들이 상명(常名)은 아니다.

14) 관련 내용: 도덕경 62장 道者萬物之奧 善人之寶 不善人之所保(도란 만물의 안방으로 잘 하는 사람에게 보배지만 잘못 하는 사람에게도 보호처가 된다), 人之不善 何棄之有(말과 행위를 잘 못 하는 사람들도 어찌 쫓겨 둘 수 있겠는가?)

도덕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 인본주의가 인간을 중심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간능력'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면, 노자는 인간을 자연적 본성을 갖고 있는 자연의 일부로 바라보며 인간 자체 뿐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삶과 세상만물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자연의 본성인 도에서 벗어난 어떤 인위적 개입도 거부하는 무위(無爲)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도덕경에서 제시하는 이념적 지향을 굳이 정의하자면 '자연적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으며, 이 때 비증은 인본주의보다는 '자연'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본성을 되찾을 수 있는 존재로서 클라이언트

그동안 서구의 인간관계에 기초한 실천관계론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중시해 왔다. 언어적 표현을 신뢰하여 탐구와 논쟁을 통해 상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서구적 사고의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경에서 보는 대상에 대한 이해는 이와는 다르다. "도덕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道)는 자연(自然), 곧 스스로 그러함으로서 자유롭고 생명력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겉으로는 혼돈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일체의 차별과 대립을 혼연히 하나로 감싸고 있기에 그야말로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한 인과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인식을 뛰어 넘는다고 본다"(김정탁, 2011 : 14-15).

그러므로 도덕경에 의하면 클라이언트를 특징짓는 장애인, 빈민, 한부모, 정신질환(자) 등의 개념은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름일 뿐 그 대상의 본질은 일부밖에 담아내지 못 한다.¹⁶⁾ 개념이 존재를 규정한다고 믿고 있는 근대적 사유에서와 달리, 노자의 사유에서 개념은 존재의 일부만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클라이언트' 역시 인위적, 작위적 개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일시적으로라도 클라이언트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노자는 만물은 인위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면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문제없이 돌아가지만 인위적 가치와 척도를 들이대고 그에 맞추려는 억압과 강제에서 문제가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絕聖棄智 民利百倍 絕仁棄義 民復孝慈 絕巧棄利 盜賊無有

此三者以爲文不足 故令有所屬 見素抱樸 少私寡欲 (도덕경 19장 中)

성(聖)을 버리고 지혜(智)를 멀리하면 백성들의 이로움이 백배가 되고, 인(仁)을 버리고 의(義)를 멀리하면 (인위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으면) 백성이 치사랑(孝)과 내리 사랑(慈)을 회복하며, 기교를 버리고 문명의 이기를 멀리하면 도적이 없어진다. 이 세 가지로는 인위적 제도인 문식(文飾)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백성이 자족을 누리며, 눈으로는 소박(素朴)함을 보고, 마음으로는 질박(質朴)함을

15) 관련 내용: 도덕경 49장 聖人無常心 以百姓心爲心(성인은 정해놓은 마음이 없으니,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16) 관련내용: 도덕경 1장 名可名 非常名(이름이라고 불리어질 만한 이름이 참 이름은 아니다), 此兩者 同出而異名 同謂之玄 (유명과 무명은 같이 나와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 말과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확실하게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이를 모두 가물거린다고 이른다)

품으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欲)을 덜어내게 된다.

이와 같이 본래 인간은 덕을 품은 온전한 존재지만¹⁷⁾ 외부에서 유입된 명(名)과 욕(欲)에 의해서 중심을 잃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그러므로 클라이언트란 인간 본성인 도(道)의 담지자로서 비록 일시적으로 본성을 잃고 불선인(不善人)¹⁹⁾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을 억압하고 소외시키는 작위적인 가치나 착취적인 사회구조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면 인간은 자화(自化), 자정(自正)을 통해 본성을 회복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면 사회복지실천이라 해도 그 실천이 조작적 개념에 얽매어 클라이언트에게 또 다른 인위적인 가치의 잣대를 들이대고 세상의 시류에 따라 가시적 성과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개입이라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도덕경의 원리를 따르는 사회복지사라면 대상의 본성에 대한 겸손하고 신중한 개념적 성찰, 자연적 인본주의를 위협하는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가고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3) 성찰적 도의 주체로서 사회복지사

도덕경 곳곳에 서술된 성인(聖人), 또는 선인(善人)의 모습에서 이 시대의 사회복지사에 비견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불선인(不善人)에게 도움을 주는 선인(善人)의 역할이다(도덕경 27장). 비록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마다하는 굶은일들을 기꺼이 맡아서 하는 지도자나(도덕경 78장), 약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나무라지 않고 공정하게 쥐야 할 것을 주는 존재(도덕경 79장)도 사회복지사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성인 또는 선인의 모습은 사회복지사의 이상적인 상태와 상당히 겹쳐진다. 단, 여기서 선인(善人)은 단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 도를 따라 도와 일치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사회복지사는 인간 본성으로서 도를 깨우치고 이를 실현해 가는 존재이며, 인위적 규범과 욕망의 기준에 의해 일시적으로 불선인이 된 클라이언트가 본성을 되찾아 자연스럽게 얻은 평화와 안녕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완전히 이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7) 관련내용: 도덕경 10장 專氣致柔 能嬰兒乎(몸의 기를 순수하게 하고 부드러움을 이루어서 어린 아기가 될 수 있는가?), 55장 含德之厚 比於赤子(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갓난아이에 비유된다)

18) 관련내용: 도덕경 3장 不尚賢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 不見可欲使民心不亂(현자랍시고 떠받들지 않는 것이 백성이 경쟁하지 않게 하는 길이고,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백성이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될 길이며, 욕심날 만한 물건을 들추어 보여주지 않는 것이 백성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는 길이다)

19) 관련 내용: 도덕경 27장에 나오는 불선인(不善人)은 잘 하지 못 하는 사람,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도덕경의 원리를 따르는 사회복지사에게는 난득지화(難得之貨)²⁰⁾를 좇아 인간성을 황폐화하는 경쟁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과 이런 인위적 가치를 강요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 전제된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런 세속적 가치에 휩쓸려 허욕(虛慾)을 갖지 않으며 삶의 주체자로서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자세를 견지하고자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²¹⁾ 이러한 바탕 위에서 비로소 클라이언트가 도를 깨달아 가는 과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매개자이자 반성적 안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덕경에서는 이러한 실천은 무위(無爲)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무위란 무관심하게 방임 또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에 따라 하지 않는 것으로서, 말 없는 가르침이며 자생적 힘을 신뢰하여 외부조작이나 간섭 없이 본성의 에너지가 발휘될 수 있게 넓은 장을 만들어 주고 뒤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是以聖人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萬物作焉而不辭 生而不有 爲而不恃
功成而弗居 夫唯弗居是以不去 (도덕경 2장 中)

그래서 성인은 함이 없는(無爲)의 일을 처리하고 말 없는 가르침을 베푼다. 만물이 이루어져가도 그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고, 만물을 낳게 해주지만 소유하지 않으며, 보살피주지만 기대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무릇, 조금도 머물지 않을 뿐이므로 떠나지도 않는다.

견주어 비교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 조금함, 불필요한 참견, 도움을 주어 공을 세우고 인정과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 뿐 아니라 이성의 기획에 따라 과도하게 좋음과 밝음만을 추구하는 것이나 ‘스스로를 과신하며 무한 긍정을 강요하는 것(한병철, 2012)’ 역시 무위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태도나 행위는 부작용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반면 자연의 변화와 질서 앞에서 겸허한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갈하게 하며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은 잠시 가시적 성과를 올리지 못 하고 수동적으로 보일지라도 길게 보면 더 의미 있는 일을 이룬다(김정탁, 2011; 이부영, 2012).

이런 입장에서는 폐쇄적 전문가주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이데올로기를 포함한 사회적 명(名)과 욕(慾)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전문가’라는 이름에 사로잡힌 지식인도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는 틀에 박힌 규범을 만들어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²²⁾ 따라서 선인으로서 사회복지사는 자기 이익을 앞에 두고 전문가라는 명칭과 몇 가지 이론적 굴레에 사로잡혀 클라이언트를 아래로 보고 설블리 판단하거나 구분 짓는 행위를 지양한다.

20) 탐심이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연기 어려운 재화(도덕경 3장).

21) 관련 내용: 俗人昭昭 我獨昏昏 俗人察察 我獨悶悶 澹兮其若海 颯兮若無止 衆人皆有以 而我獨 頑似鄙 我獨異於人而貴食母(세상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만 멍청하고, 세상 사람들은 썸 밝은데 나만 어리버리. 내 마음이야 차분함이 바다와 같고 자유롭게 노닐음은 끝이 없는 듯. 남들은 모두 능력이 있는데 나만 혼자 완고하고 촌스러운 듯. 남과 달리, 나는 밥 어미를 귀히 여기네)(도덕경 20장).

22) 관련 내용: 도덕경 32장 始制有名 名亦既有 夫亦將知止 知止 可以不殆 譬道之在天下 猶川谷之於江海(사람들이 제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름이 생기고, 이름이 생기면 이미 제도가 생겨나게 되나니, 무릇 이런 것을 멈출 줄 알려고 해야 할 것이다.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도가 천하에 편재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이 골 저 골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4) 상생(相生)을 본질로 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타인과 구분되는 자기(self) 개념이 확고한 서양에서는 독립성과 자유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개인들(individuals) 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식에 의해 개인들은 모두 개성과 자율성을 가진 1인으로서 평등하며 그 상대가 누구든 보편적 행위규범을 갖는 것을 지향한다(최인철 역, 2004: 60-80). 이에 반해 동양적 사고방식에서는 사람을 '인간(人間, 사람 사이)'로 표현하듯이 관계 속의 존재로 보고 조화와 어울림, 그리고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행동원리를 증시한다. 이러한 동양적인 인간관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경의 '상관 대대론'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 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是以聖人 常善救人 故無棄人 尙善救物 故無棄物 是謂襲明
故善人者 不善人之師 不善人者 善人之資 (도덕경 27장 中)

그러므로 성인은 언제나 사람을 잘 구원해주므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항상 만물을 잘 구원해주므로 버려지는 것들이 없다. 이런 성인의 태도를 습명(襲明, 밝은 지혜를 간직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잘 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의 스승이 되고 잘 하지 못한 사람은 잘 하는 사람의 자원이 된다.

도움을 주는 선인(善人)은 불선인(不善人)이 있기에 존재한다. 도움을 주려 해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마치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와 같이 서로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상호적이며 순환적인 관계이다. 이는 곧 본질적인 상호의존성과 근원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는 '상생(相生)'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생의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의 역할도 가변적인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실천관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에 대해 '거리모델'에서는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관계모델'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지만(Dietz and Thompson, 2004 :15), 도덕경의 원리에 따른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은 서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적극-소극의 수준이 달라지며 또 상보적으로 변할 수 있다.²³⁾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추고 상호성에 근거한 상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상생의 관계가 갖는 의미는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聖人不積 既以爲人 己愈有 既以與人 己愈多 (도덕경 81장 中)

성인은 쌓아두지 않고 이미 남을 위해 베풀므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자신이 더 많이 가지게 되며 이미 남에게 주었으므로 자신이 더욱 많이 얻게 된다.

23) 관련 내용 : 曲則全 枉則直 窪則盈 弊則新 少則得 多則惑(숙이면 온전해지고, 굽히면 곧아지고, 퍼내면 채워지고, 낡아지면 새로워지며, 적게 가지면 얻게 되고, 많이 쌓아두면 유혹을 당한다)(도덕경 22장).

남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오히려 스스로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정해져 있지 않다. 줌으로써 받고 받음으로써 주는 것이다. 단, 이것이 1:1의 등가적 교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주고받는 것이 다른 내용과 방식일 수 있으며 자신이 베풀 대상이 아닌 타인에게서도 받을 수 있는 다차원적이고 순환적인 관계를 뜻한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통해 그가 성장해 가는 걸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소진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최명민 외, 2005).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상생의 차원에서 논하거나 이를 분명히 제시한 경우는 드물다. 강점 관점에서조차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찾아주는 존재이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거나 배우다'는 인식은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덕경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겉으로는 일시적으로 위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상보적이고 순환적이기 때문에 평등할 수밖에 없다. 물론 서구사회에서 개발된 사회복지실천 관계론에서도 강점관점의 대두와 더불어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적 거리보다는 상호성과 개방성을 중요한 관계역동으로 꼽기도 한다(Dietz and Thompson, 2004).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는 평등, 개방, 상호성 등의 개념은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인들의 1:1 만남과 교환적 협력관계를 전제로 한다. 반면 도덕경에 따르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역동의 본질 자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형제자매 관계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그렇다고 해서 두 체계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 순환하는 유무상생의 상관적 관계이며 그렇기에 어느 한 쪽이 관계의 주인이나 중심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개념을 구성요소에 따라 분리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와 위계를 정하는 서양철학의 전통적 분석주의적 접근과 차별화되며, 포스트모던 접근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복지사 대 클라이언트 간 대립적인 이항분리적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도덕경의 사고체계로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을 조망하려는 탐색적 노력이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지향점을 '자연적 인본주의'로 도출하고, 클라이언트는 본성을 되찾을 수 있는 존재이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도를 깨달아 가는 과정의 동반자인 동시에 매개자이자 반성적 안내자로서 역할을 성찰적 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는 어느 한 쪽이 관계의 주인이나 중심이 아니라 서로 순환하는 유무상생의 상관적 관계

24) 관련 내용: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분화되어 둘을 낳고, 둘은 섞여서 셋을 낳고, 셋은 뒤섞이고 분화되어 만물을 낳는다. 만물은 음(陰)도 지고 동시에 양(陽)을 품어, 기운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도덕경 42장).

가 될 때 이상적이라고 보았다.

이로써 자연적 인본주의에 근거한 인간 본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 그리고 이를 거스르는 인위와 문명에 대한 비판의식과 아울러 성찰과 소박을 견지하는 인간관계의 추구 등으로 대변되는 노자의 사상이 유동하는 현대사회의 한계와 혼란의 중심에 놓여 있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의미 있는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개인과 사회, 정상과 비정상, 자연과 인간 등의 분리를 전제한 모더니즘적 시각을 연관과 상관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도덕경의 관점은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논의들에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하리라 본다. 특히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대두하고 있는 전문직 역할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흐름과 아울러 우리 삶에 고유한 한국적 사회복지실천을 모색하려는 노력에 단초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사회복지실천관계론으로 제한하였으나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에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과제를 통해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해 가야 할 것이다.

첫째, 노자 사상이 대중적 교육을 통해 전문직 소양으로 효율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자 사상의 신비주의적 경향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사회복지의 '도(道)'에 대한 추구가 단순히 전문직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천전략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비표상적 사유체계를 통한 체험과 공감의 인식방법(김영건, 2001)이 사회복지 고유의 실천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실천이 관계론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면담, 개입과정,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복합적 산물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다양한 모델로 구현되어 실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탐색적 노력 또한 관계론을 넘어 하나의 실천 모델로 완결될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되고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자 사상이 사회복지실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복지실천 패러다임에 근거한 모델과 노자사상에 근거한 모델간의 다양한 비교연구와 경험적 자료의 축적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과연 어떤 모델이 더 효과적인가라는 단순한 비교 차원을 넘어 바람직한 실천 모델을 둘러싼 이념적, 이론적, 실천적 대화를 이론현장과 실천현장을 연결하여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수준에서 사회복지와 그에 대한 이름(名)은 변화하고 있으나 이 모든 노력의 핵심에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든 주체들의 진정한 행복과 안녕이 있음은 변하지 않는 상도(常道)이다. 비록 힘든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 있어 진정한 행복과 안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 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에 대한 집합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노자의 도덕경이 바로 그 의미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조심스레 전망해 본다.

참고문헌

- 강승원·이희정, 2012,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용자 참여인식과 경험”, 『한국사회복지 연구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44.
- 권자영a, 2010, “정신장애인이 지각한 실천관계가 재활성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b, 2010, “한국어판 치료적 관계적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5: 81-110.
- 권중돈, 2002, “사회복지사의 실천 유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의 권력·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논문집』, 41: 63-91.
- 권지성·김교연·김지혜, 2004, “종합사회복지관 초임 사회복지사의 직업경험에 대한 현실기반이론적 접근”, 『사회복지연구』, 24: 5-44.
- 김기덕, 2006, “하버마스 비판이론의 사회복지 실천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의사소통행위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4): 119-139.
- 김기덕·장은숙, 2008,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에 관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 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9: 83-113.
- 김기태·양옥경·홍선미·박지영·최명민, 2005, “한국 사회복지실천교육모델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1(1): 19-68.
- 김동국, 2008, “동양적 패러다임에 입각한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 전환”, 『한국민족문화』, 32: 425-454.
- 김문주, 2005, “동아시아 전통 사상의 미학적 연구(2)-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2: 267-288.
- 김백희, 2004, “노자사상의 체계”, 『인문학지』, 28: 91-115.
- 김성천, 2010, “가족복지실천에서의 관계”,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27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5-14.
- 김수동, 2006, “배려의 관점에서 이해한 자연의 교육적 개념: 노자의 도덕경을 중심으로”, 『한국성인교육 학회』, 9(4): 201-235.
- 김영건, 2001, “과연 우리는 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가?”, 한국도가철학회 편, 『노자에서 데리다까지』, 서울: 예문서원, 69-88.
- 김연희·하경희, 2005,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92-124.
- 김용득·이복실·강희설, 2009, “지적장애인이 인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제공자와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40(4): 231-257.
- 김윤경, 2011, “조선시대 <노자> 주석서에서 인의(仁義)와 사(私) 개념의 전개”, 『한국철학논집』, 31: 241-262.
- 김정탁, 2011, 『현, 노장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근, 1991, “老子的 本體論 研究-哲學史的 意義와 理論分析을 中心으로”, 『역사와 사회』, 5: 203-226.
- 김현아, 2007, “양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새터민 상담자의 역할과 과제: 치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90-91.
- 김형효, 2004, 『사유하는 도덕경』, 소나무.
- 노혜숙·이춘재·김미정, 2007, “상담초기 아동의 치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상담자 특성: 전문적 경험과 역전이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8(4): 1557-1571.

- 도광순, 1994, “한국인의 심성과 도교”, 『도교학연구』, 13:161-170.
- 맹주만, 2009, “칸트와 노자: 경계와 사이의 철학-사이의 존재론과 경계적 자아”, 『칸트연구』, 24: 201-231.
- 민소영, 2005, “사례관리자와의 치료적 관계가 정신장애 노숙인의 정신건강 외래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 64-91.
- 박미은·서미경·김영란, 2001, “이중관계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신념과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 : 178-205.
- 박숙경·김용득, 2010, “지적장애 이용자와의관계에 대한 실천가의 인식유형”, 『한국사회복지학』, 62(1): 367-389.
- 박희택, 2004, “사회복지의 개념구성에 관한 동양학적 고찰”, 『진각사회복지』, 1: 71-89.
- 사회복지정보원, 2011, 『복지심서-한문고전의 복지 寶鑑』, 원광문화사.
- 양난주, 2010,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행위자간 관계의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 79-102.
- 양옥경·김정진·서미경·김미옥·김소희, 2005, 『사회복지실천론』, 파주: 나눔.
- 안재호, 2008, “노자철학체계 분석”, 『중국학보』, 57: 325-340.
- 엄명용·김성천·오혜경·윤혜미,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오상무, 2005, “老子的 有, 無, 道의 관계 再論”, 『동서철학연구』, 36: 245-265.
- 오열근, 2010, “포스트모던조직론과 노자의 道德經: 解體(差延)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사학지』, 26: 107-155.
- 유성애, 2004, “노자의 도덕경과 로저스의 인강 중심 상담 이론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준, 2008, “사회복지사의 인식론적 신념과 지시적 실천정도”, 『사회복지연구』, 36: 227-252.
- 이근무·김영숙, 2009, “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식의 본질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217-241.
- 이봉주, 2013, “전문가주의와 수요자중심서비스의 갈등과 조화: 클라이언트, 고객, 서비스이용자?”,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71-90.
- 이부영, 2008, “노자 도덕경에서 본 치유의 의미: 분석심리학의 입장에서”, 『심성연구』, 23(2): 64-80.
- _____, 2012, 『노자와 융: 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파주: 한길사.
- 이진경, 2005, “노자의 현실 비판과 정치적 해결 방식”, 『동서철학연구』, 38: 179-199.
- 이하배, 2003, “노자의 정치·윤리철학-함께하는 삶과 有爲無位 無爲有位”, 『동양철학연구』, 34: 371-402.
- 이현주, 2012,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전문직 정체성을 찾아가는가?”,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원숙, 2008,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 학지사.
- 장백기, 2001, “노자 도덕경의 건축학의 정의고”,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2(3): 97-108.
- 장성숙, 2001, “현실역동 집단: 우리 문화의 관점에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3(2): 1-18.
- 전동진, 1999, “하이데거의 존재와 노자의 도”, 『해석학 연구』, 5: 213-239.
- 조순영·임재택, 2011, “노자 도덕경의 유아교육적 의미”, 『유아교육연구』, 31(5): 137-154.
- 최명민·현진희·전혜성, 2005, “의료사회복지사를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복지학』, 57(4): 343-370.
- 최명민 역, 2007, 『임파워먼트와 사회복지실천』, Robert Adams, 2000, *Social Work and Empowerment*, 파주: 나눔출판.
- 최명민, 2008, “한국인의 정을 고려한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방법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

- 356-384.
- _____. 2009, "사회복지윤리교육의 현황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4): 381-402.
- 최성재 · 조홍식 · 한인영 · 김경미 · 이영분 · 윤현숙 · 유수현 · 김성천 · 최혜지, 2013,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집문당.
- 최옥채, 2002, 『사회복지실천론』, 과주: 양서원.
- _____. 2012, "사회복지실천대안 모색: 현실과악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35-274.
- 최인철 역, 2004,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Nisbett, R. E., 2003,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과주: 김영사.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 欽定四庫全書.
- 馮友蘭, 1983, 『중국철학사 신편 I』, 北京: 人民出版社.
- Abramson, M., 1996, "Reflections on knowing oneself ethically: Toward a working framework for social work practice", *Families in Society*, 77(4): 195-201.
- Arnd-Caddigan, M., and Pozzuto, R., 2008, "Use of self in relational clinical social work", *Clinical Social Work*, 36: 235-243.
- Biestek, F. P., 1957, *The Casework Relationship*, George Allen & Unwin, London.
- Brown, L. S., 1994, *Subversive Dialogues: Theory in Feminist 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Coady, N., 1993, "The worker-client relationship revisited", *Families in Society*, 74(5): 291-298.
- Compton, B. R., Galaway, B., and Cournoyer, B., 2005, *Social Work Process*, New York: Brooks/Cole Publishing.
- Cooper, B., 2001, "Constructivism in social work: Towards a participative practice viability",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721-738.
- Davies, M., 1994, *The Essential Social Worker: A Guide to Positive Practice*, Gower: Aldershot.
- Dewane, C. J., 2007, "Use of self: A primer revisited", *Clinical Social Work*, 34(4): 543-558.
- Dietz, C., and Thompson, J., 2004, "Rethinking boundaries: Ethical dilemmas in the social worker-client relationship", *Journal of Progressive Human Services*, 15(2): 1-24.
- Edward, J., and Bess, J., 1998, "Developing effectiveness in the therapeutic use of self", *Clinical Social Work*, 26(1): 89-105.
- Ferguson, H., 2001, "Social work, individualization and Life politic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1: 41-55.
- Goldstein, E., 1997, "To tell or not to tell: The disclosure of events in the therapist Life", *Clinical Social Work*, 25(1): 41-58.
- Holter, M. C., Mowbray, C. T., Bellamy, C. D., MacFalane, P., and Dukarski, J., 2004, "Critical ingredients of consumer run services: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40: 47-63.
- Kondrat, D. C., and Early, J. E., 2010, "An exploration the working alliance in mental health case management", *Social Work Research*, 34(4): 201-211.
- Leung, 2011, "Client participation in managing social work service: An unfinished quest", *Social*

Work, 56(1): 43-52.

Perlman, H. H., 1957, *Social Casework: A Problem-Solving Proc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Kondon.

Pincus, A., and Minahan, A., 1971, *Social Work Practice: Model and Method*, F. E. Peacock, Illinois.

Ribner, D. S., and Knei-Paz, C., 2002, "Client's view of a successful helping relationship", *Social Work*, 47(4): 379-387.

Schwartz, W., 2005, "The group work tradition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Work with Groups*, 28(3): 69-89.

Wilson, A., and Beresford, P., 2000, "Anti-oppressive practice: Emancipation or appropri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30: 553-573.

In Quest of Alternative Thoughts for Social Work Practice Relationship Based on Lao-tzu's Work of Tao Te Ching

Choi, Myungmin

(Baekseok University)

Park, Seunghee

(Sungkunkwan University)

Kim, Sungchun

(Chung-Ang University)

Kim, Giduk

(Soonchunhyang University)

Lee, Eunjoung

(Chung-Ang University)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existing discourses about 'relationship', a key element of social work practice and questingly examines Lao-tzu's work of Tao Te Ching, the book of way and virtue, as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for social work relationship.

Compared to current discourses of relationship beleaguered by either modernism or postmodernism, both of which are in the deadlock of binary perspective, the insights and vision in Tao Te Ching are successfully able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m and provide new and profound way of thinking about human, society and their relationship.

Especially core cannons crystallized by natural humanistic concepts for cosmos coupled with innate critical power against artificial manipulations of world can extend the horizon of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ent and social workers and therefore provide a new and attractive roles in professional relationship. Moreover, opposed to usual images of Lao-tzu's ideas such as nihilism and passivity, alternative relationship of social work can play an important role of caring the disordered reality where Dao disappered and criticise the selfish desires of individuals and comport the broken-hearted minds in

modern society.

In addition, results of this paper implies that more extended study articulating ideas of Tao Te Ching with the social work practice would have lots of potentials to promote later researches in quest of 'Korean' social work practice.

Key words: Social work practice, Theory of relationship, Lao-tzu's Tao Te Ching, Natural humanism, Reflectivity.

[논문 접수일 : 13. 11. 09, 심사일 : 13. 11. 19, 게재 확정일 : 13. 12. 23]